

경제 동향





■ 요약

■ 경기 생산/출하 · 재고 순환/소비/물가

■ 고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

■ 부동산 건설경기/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융 시중자금사정/창업동향/어음부도율
신용보증동향/수출입동향

<p>경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12월 기준 서울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서울의 제조업생산지수는 95.9(2000=100)로, 전년동월대비 중공업은 14.6% 감소하고 경공업은 2.5%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2.7% 감소함 ○ 2006년 12월 기준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5,55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판매액이 각각 7.9%, 7.1%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8.0% 증가함 ○ 2007년 1월 기준 서울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소폭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2% 상승하여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함
<p>고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1월 기준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4%p 감소한 62.8%로 남자는 74.3%, 여자는 51.9%임 ○ 2007년 1월 기준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0.2% 감소한 4,888천명으로, 3개월 연속 전국의 취업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감소함 - 전체 취업자의 22.2%를 차지하는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7% 감소한 반면 고령층 취업자는 6.1%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냄 ○ 2007년 1월 기준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소폭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한 4.7%로, 최근 5년간 1월 평균 실업률(5.1%)보다 0.4%p 낮은 수준임
<p>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12월 기준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전년동월대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은 1,184천²로 비주거용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7.5% 증가함 ○ 2007년 1월 기준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세 소폭 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월대비 1.5% 상승하여 전월(3.0%)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됨 - 1월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5% 상승하였으며, 강북은 0.6%, 강남은 0.5% 상승하여 강북이 더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
<p>금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12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증가액 증가세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352조 4,225억원으로, 연중 41조 1,584억원이 증가함(+13.2%) ○ 2007년 1월 기준 전월대비 서울의 신설법인 수 증가, 부도업체 증가, 어음부도율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전월대비 22.1%(358개) 증가한 1,981개임 - 1월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1%로 전월대비 0.01%p 감소하였고,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전월대비 8개 증가한 66개로, 2006년중 평균 74.3개를 하회함 ○ 2007년 1월 기준 국고채(3년), CD(91일) 유통수익률 전월대비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전월대비 0.1%p 상승한 5.02%로 상승세를 지속함 - 1월 CD 유통수익률은 전월대비 0.1%p 상승한 4.96%로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상승속도는 다소 둔화됨 ○ 2007년 1월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소폭 감소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2006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전월대비 0.2조원 감소함

| 생 · 산 |

서울 제조업부문 산업생산 전년동월 대비 감소

- 2006년 12월 기준 전국 산업생산 증가세 둔화
 - 12월 전국의 산업생산지수는 151.6(2000=100)로 전년동월대비 2.3% 증가함
 - 2005년 12월의 높은 증가율(11.3% 증가)과 조업일수 감소(24.5일→22.5일) 등이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됨
 - 반도체관련 업종의 재고조정에 따른 생산 둔화, 부분파업·기저효과 등에 따른 자동차 생산 감소 등이 산업생산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업종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영상음향통신, 섬유제품, 석유정제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사무회계용기계, 기타운송장비, 제1차금속 등에서 증가함
 - 2006년 4/4분기로는 전년동기 대비 4.5% 증가함

- 2006년 12월 기준 서울 제조업부문 산업생산 감소세 둔화
 - 12월 서울의 제조업생산은 101.8(2000=100)로 전년동월대비 2.7% 감소함
 - 업종별로 보면 컴퓨터 및 사무기기, 의복 및 모피 등에서 증가한 반면 기타기계 및 장비,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화합물 및 화학제품 등에서 감소함
 - 2006년 4/4분기로는 전년동기 대비 6.1% 감소함

- 서울 중공업부문 산업생산 감소세 둔화
 - 산업부문별로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4.6% 감소하여 감소세가 다소 둔화됨
 - 세부업종별로 컴퓨터 및 사무기기(168.3%)만이 증가하고, 이 외 화합물 및 화학제품(-77.4%), 가구 및 기타제품(-47.2%), 기타기계 및 장비(-34.0%) 등 중공업부문의 대부분이 감소함
 -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5% 증가하여 지난 11월까지 감소세가 증가세로 반전됨
 - 세부업종별로 가죽·가방 및 신발(24.5%), 의복 및 모피(15.1%) 등이 증가하였고 종이제품(-29.1%), 음식료품(-9.8%) 등이 감소함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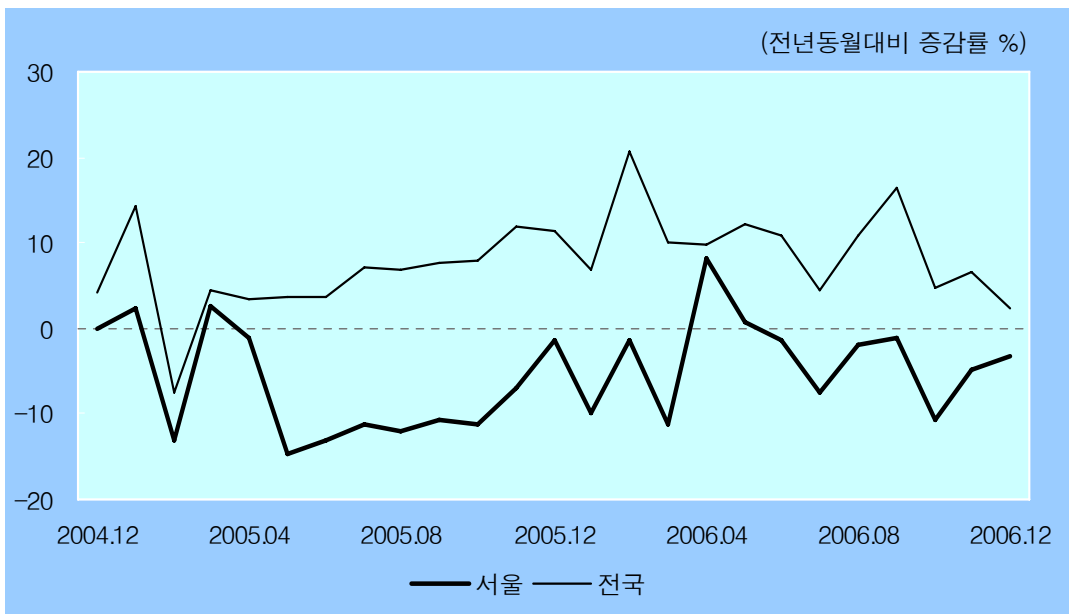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5년	2006년					
	12월	8월	9월	10월	11월p	12월p	
전년 동월비	전국	11.3 (-2.7)	10.9 (3.7)	16.5 (3.1)	4.8 (2.8)	6.5 (-1.4)	2.3 (-3.9)
	서울 (제조업)	-3.1 (4.0)	-2.5 (2.0)	-1.3 (8.8)	-10.4 (-4.0)	-4.7 (10.4)	-2.7 (6.2)
	중공업	-21.3 (13.8)	-18.2 (3.8)	-16.2 (2.4)	-20.3 (-8.7)	-15.5 (16.9)	-14.6 (15.2)
	경공업	8.2 (0.1)	4.7 (1.3)	4.9 (11.1)	-6.8 (-2.5)	-0.4 (8.4)	2.5 (3.0)

주: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0=100), 서울의 전월비는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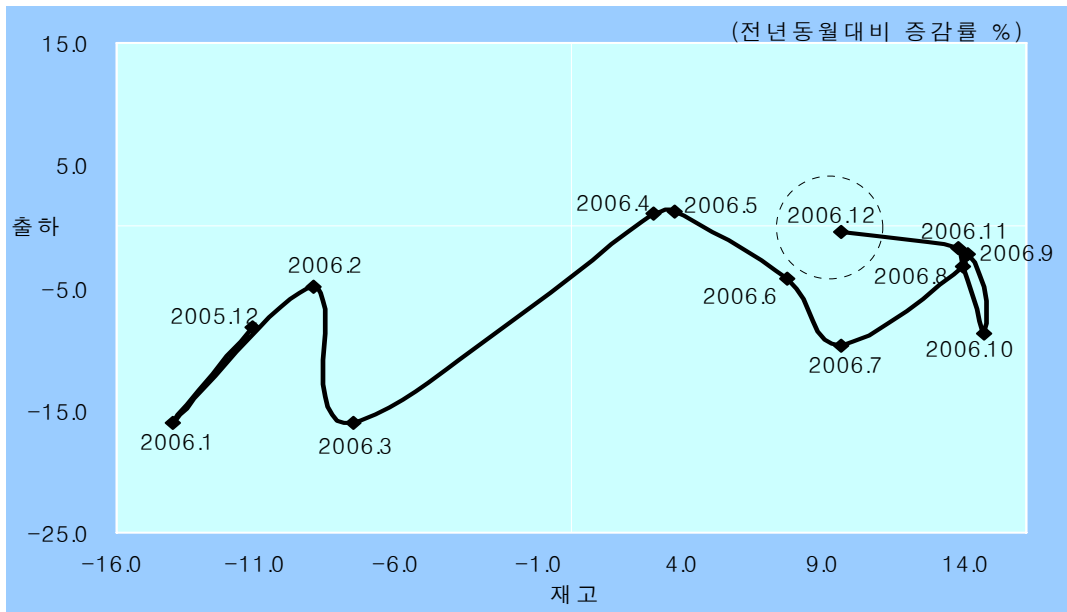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출하 · 재고 순환 |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감소 단계

- 2006년 12월 기준 서울 제조업부문 전년동월대비 출하 감소, 재고 증가
 - 서울 제조업 생산자제품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0.4% 감소하고,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9.5% 증가함
 - 12월 서울 제조업 출하·재고를 중심으로 한 경기 순환 분석 결과, 출하는 감소세가 다소 둔화되었고 재고는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다소 불규칙적인 모습을 보임
 - 12월의 출하·재고 상황은 전체적으로 출하는 소폭 상향하고 재고는 하향하여 재고감소 단계(<Box> 참조)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2006년 12월 기준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율 2006년중 최저치

- 12월 전국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95.1%로 전월대비 상승하였고, 서울 제조업부문의 재고율은 전월 보다 17.0%p 하락한 139.6%를 나타내어 서울의 재고율은 2005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냄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139.1%, 경공업부문이 138.7%로, 전월대비 각각 18.3%p, 16.0%p 하락하여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율 하락에 영향을 줌

<표>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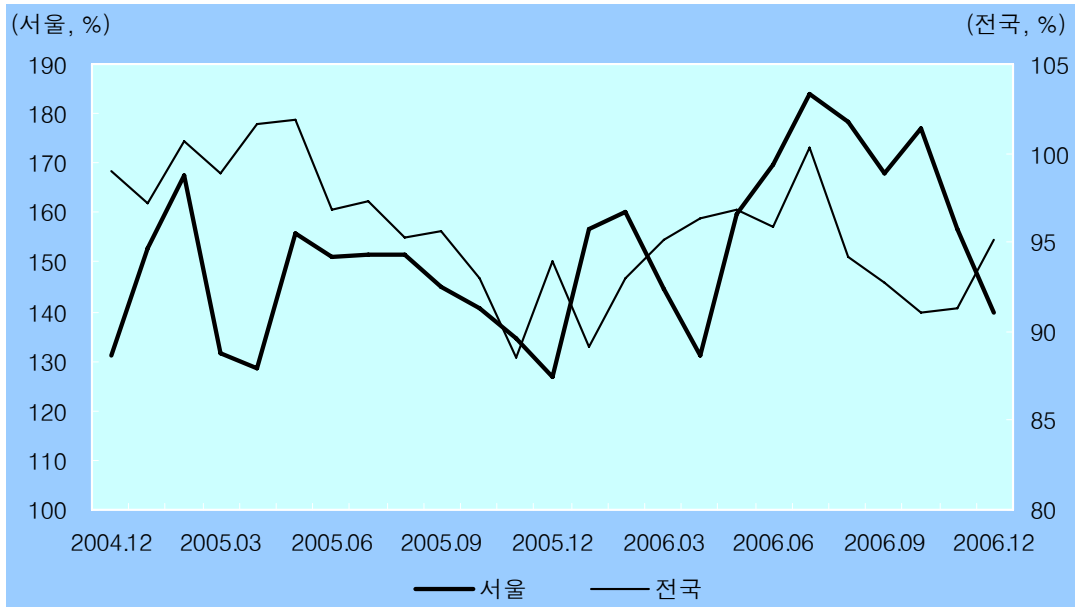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5년		2006년				
	12월	8월	9월	10월	11월p	12월p	
재고율	전국	93.9	94.2	92.7	91.0	91.3	95.1
	서울 (제조업)	127.0	178.1	167.8	176.9	156.6	139.6
	중공업	109.1	143.1	148.6	164.4	157.4	139.1
	경공업	132.9	189.1	171.9	178.4	154.7	138.7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소 · 비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06년 12월 기준 전국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세 소폭 둔화
 - 12월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4조 3691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9% 증가하여 증가세가 다소 둔화됨
 - 백화점은 귀금속, 의복·신발·가방 등의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0.4% 소폭 증가하였고, 대형마트는 주방용품 등에서 판매가 줄었으나, 가전제품, 의복, 음식료품 등의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7.9% 증가함
- 2006년 12월 기준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세 소폭 확대
 - 12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5550억 원으로, 전년동월에 비하여 백화점 판매액은 7.9%, 대형마트 7.1% 각각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8.0% 증가함
 - 백화점부문의 경우 크리스마스 및 연말 특수로 인한 귀금속, 운동·오락용품 등의 판매 증가와 혼수용품(가전, 가구, 귀금속 등)의 판매호조로 백화점 판매액이 증가함
 - 대형마트부문은 크리스마스와 연말 특수로 음식료품 및 오락용품 등의 판매증가와 혼수용품 판매 증가, 소비자들의 대형점 선호 소비성향에 따라 증가세가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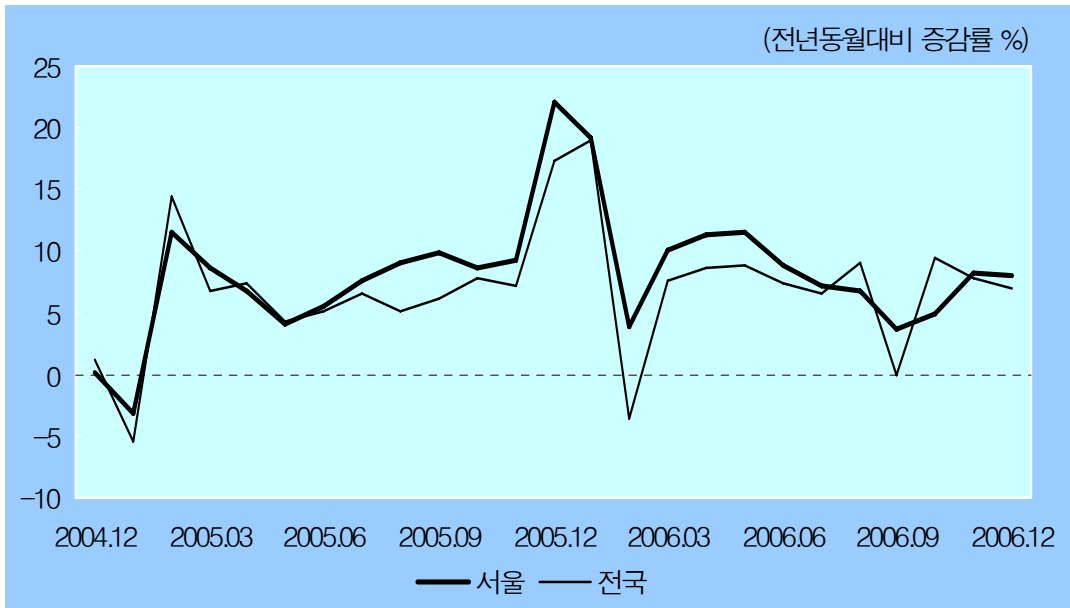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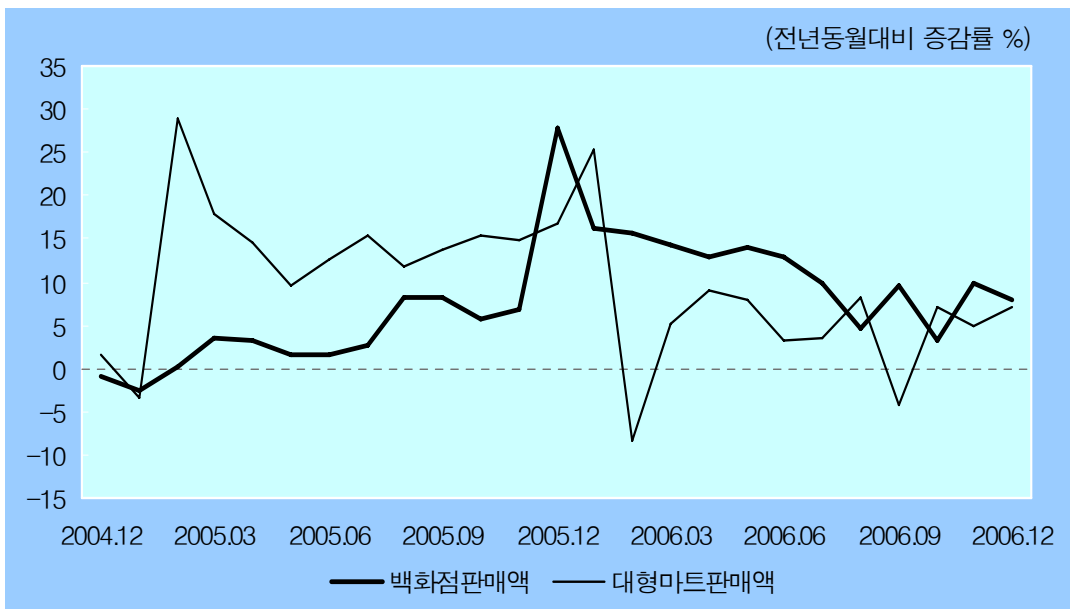
구 분	2005년	2006년					
	12월	8월	9월	10월	11월p	12월p	
판매액	전국	4,087 (17.4)	3,356 (9.1)	3,720 (-0.1)	3,973 (9.5)	3,791 (7.8)	4,370 (6.9)
	서울	1,440 (22.2)	1,069 (6.8)	1,261 (3.7)	1,319 (4.9)	1,277 (8.2)	1,555 (8.0)
	백화점	895 (27.8)	530 (4.7)	712 (9.7)	782 (3.1)	744 (9.9)	966 (7.9)
	대형마트 (할인점)	512 (16.8)	502 (8.3)	513 (-4.2)	504 (7.1)	496 (4.9)	548 (7.1)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²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예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물 · 가 |

서울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소폭 상승

■ 2007년 1월 기준 전국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소폭 상승

- 1월 전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2% 상승하여 지난 12월에 이어 상승세를 나타냄
- 이는 석유류(-0.3%)를 포함한 공업 제품의 하락(-0.1%)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0.9%), 공공서비스(0.3%), 개인서비스(0.3%), 집세(0.2%) 부문이 상승한데 기인함

■ 2007년 1월 기준 서울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소폭 상승

- 1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2% 상승하여 전국과 마찬가지로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냄
- 비목별로 보면 진통제, 외래진료비 등 보건의료부문이 큰 폭(1.6%)으로 상승하였으며, 이어 학원비 등 교육(0.5%)과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0.3%) 부문이 상승함
- 반면 이동전화데이터통화료(-6.9%) 등 통신부문(-0.7%)과 주류 및 담배 부문(-0.1%)은 하락함

■ 서비스부문이 상품부문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상승

- 상품성질별 물가 동향을 살펴보면 서비스 부문은 0.3%, 상품부문은 0.1% 상승하여 서비스가 상품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상승함
- 상품부문을 보면 채소류 및 과일류의 출회 감소에 따라 농축수산물이 전월대비 상승(0.5%)한 반면 전자사전, 이동전화기 등의 가격 하락에 따라 공업제품(-0.1%)은 하락함
- 서비스 부문을 보면 공동주택관리비와 전세부문의 가격 상승에 따라 집세는 전월대비 0.3% 상승함
- 개인서비스 부문은 공연예술관람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0.3% 상승하였으며, 공공서비스 부문은 상수도, 쓰레기 봉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0.2% 상승함

■ 생활물가 및 신선식품지수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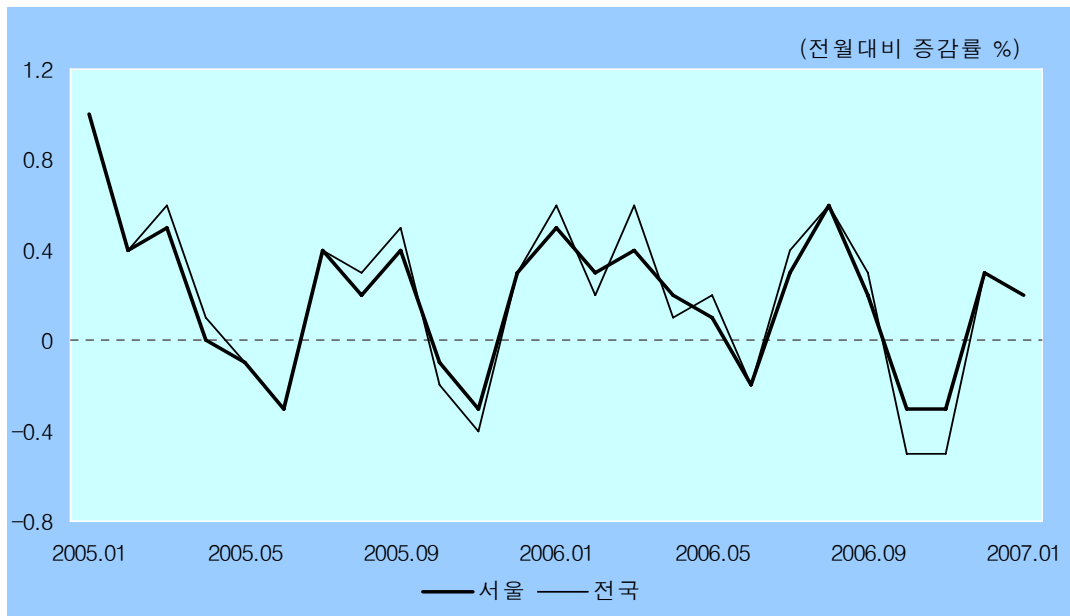
- 생활물가는 식료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1% 상승하여 전국(0.2%)보다 낮은 상승률을 나타냄
- 신선식품지수는 신선채소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6%(전국:1.7%) 상승함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1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월비	전국	0.6 (2.2)	0.6 (2.7)	0.3 (2.5)	-0.5 (2.2)	-0.5 (2.1)	0.3 (2.1)	0.2 (1.7)	
	서울	0.5 (1.9)	0.6 (2.5)	0.2 (2.3)	-0.3 (2.1)	-0.3 (2.1)	0.3 (2.1)	0.2 (1.8)	
	상품 성질별	상품	0.7 (2.3)	1.4 (2.3)	0.1 (1.3)	-0.8 (0.8)	-1.0 (0.9)	0.4 (0.8)	0.1 (0.2)
		서비스	0.4 (1.8)	0.0 (2.5)	0.3 (2.8)	0.1 (2.9)	0.0 (2.7)	0.2 (2.7)	0.3 (2.6)
	생활물가	0.5 (1.9)	0.8 (3.4)	0.5 (3.2)	-0.5 (2.9)	-0.7 (2.6)	0.4 (2.7)	0.1 (1.9)	
	신선식품	4.4 (7.9)	12.0 (4.7)	1.7 (1.3)	-2.7 (-0.2)	-6.8 (1.2)	3.0 (0.6)	0.6 (-3.1)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서울의 경제활동인구 전년동월대비 감소

- 2007년 1월 전국의 경제활동인구 전년동월대비 증가,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 1월 전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0% 증가한 38,950천명이며, 경제활동인구는 1.0% 증가한 23,580천명임
 - 경제활동참가율은 60.5%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으며, 남자는 72.9%로 전년동월과 동일한 반면에 여자는 48.8%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함
- 2007년 1월 서울의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하락
 - 1월 서울의 15세 이상 인구는 8,16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2% 증가한 반면에, 경제활동인구는 5,130천명으로 0.4% 감소함
 -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4%p 감소한 62.8%로 남자는 74.3%, 여자는 51.9%임
 - 반면 가사 또는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2% 증가함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1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경제활동 인구	전국	1.2 (-0.8)	1.2 (-1.2)	0.7 (0.5)	0.8 (0.7)	1.0 (-0.1)	1.1 (-1.9)	1.0 (-0.8)
	서울	1.5 (-0.5)	0.0 (-0.9)	-0.2 (0.4)	-0.1 (1.0)	-0.2 (0.3)	-1.0 (-0.9)	-0.4 (0.1)
	남자	0.0 (-0.9)	-0.3 (-1.1)	-0.3 (0.2)	-0.3 (0.5)	-1.3 (-0.1)	-1.6 (-0.6)	-0.4 (0.3)
	여자	3.7 (0.0)	0.3 (-0.6)	-0.1 (0.6)	0.2 (1.7)	1.3 (0.8)	-0.2 (-1.3)	-0.4 (-0.2)
경제활동 참가율	전국	60.6	61.7	62.0	62.4	62.3	61.1	60.5
	서울	63.2	62.3	62.5	63.2	63.4	62.8	62.8
	남자	74.6	74.1	74.3	74.7	74.6	74.3	74.3
	여자	52.3	51.2	51.5	52.3	52.7	52.0	51.9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취 · 업 · 자 |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

■ 2007년 1월 기준 전국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

- 1월 전국의 취업자는 22,72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258천명) 증가하여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냄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전체 취업자의 58.3%(13,259천명), 여자는 41.7%(9,470천명)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1.2%, 여자는 1.1% 증가함
-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2% 감소한 반면에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는 6.4% 증가함
- 지난해 동월대비 청년층은 지속적으로 감소세인 반면에 고령층은 증가세임

■ 2007년 1월 기준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

- 1월 서울의 취업자는 4,88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2%(-9천명) 감소하여 지난달에 이어 감소세를 나타냄
- 전국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개월 연속 증가한 반면에, 서울의 취업자 수는 감소하여 서울의 고용사정이 전국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전체 취업자 수의 56.9%(2,780천명), 여자는 43.1%(2,108천명)로 여성 취업자의 비율이 전국에 비해 1.4% 높음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0.9% 감소한 반면에 여자는 0.7% 증가하여 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냄
- 전체 취업자의 22.2%(1,085천명)를 차지하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7% 감소하여였으나 지난달에 비해서는 감소율이 1/2 정도로 축소됨
- 전체 취업자의 14.5%(708천명)를 차지하는 고령층 취업자(55세 이상)는 6.1%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냄
- 고령층 취업자의 경우 55세에서 60세 사이의 취업자는 감소(-1.6%)한 반면에 60세 이상에서 큰 폭(12.8%)의 증가율을 나타냄
- 이는 은퇴 후 재취업하는 고령층의 비율이 전년동월에 비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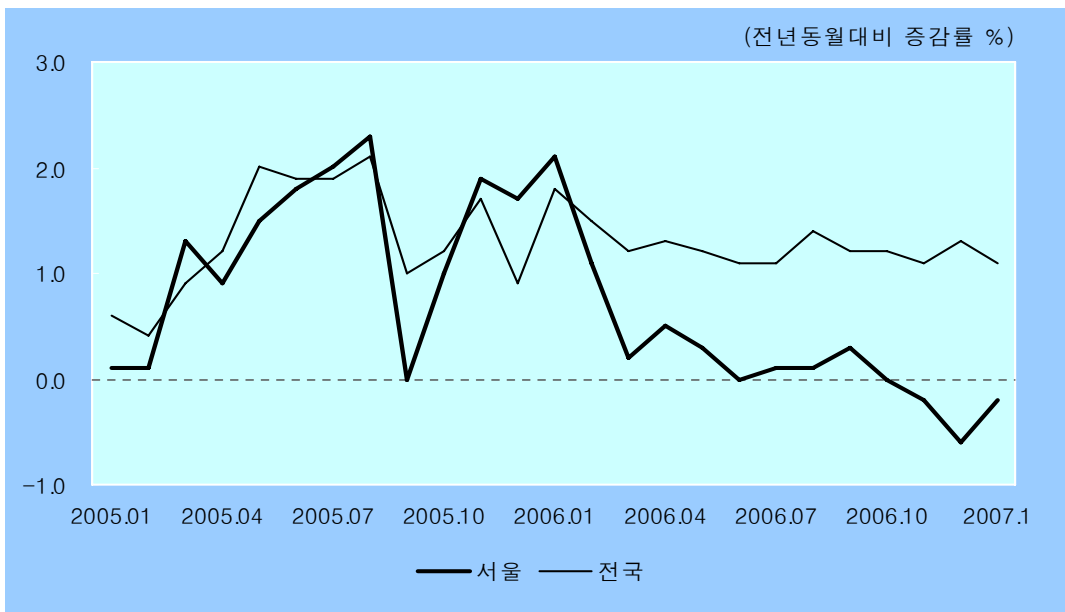
<표> 고용동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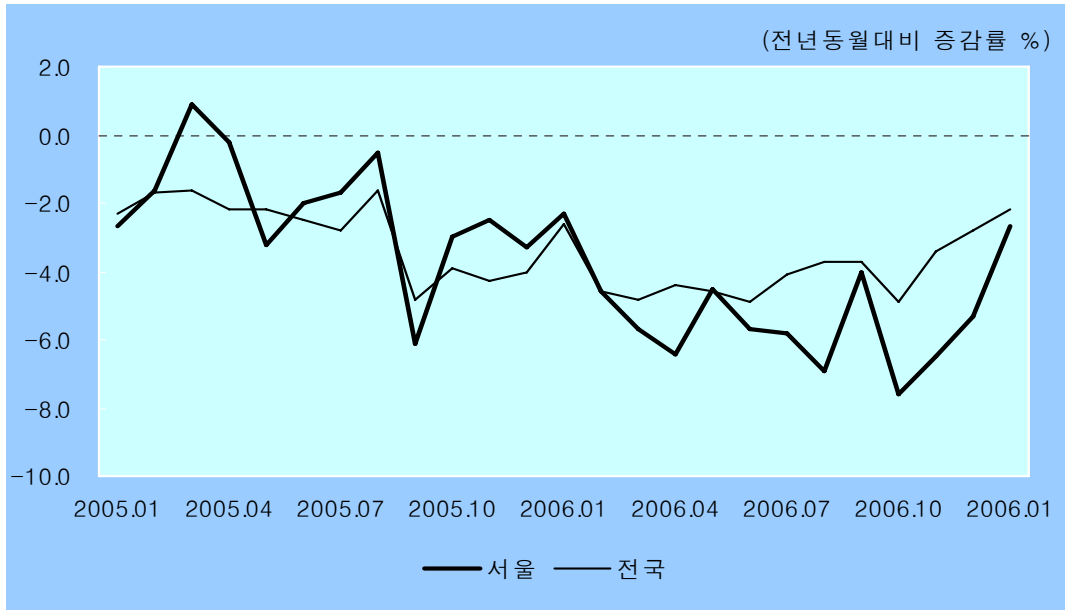
구 분	2006년						2007년	
	1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취업자	전국	1.8 (-1.0)	1.4 (-1.2)	1.2 (0.7)	1.2 (0.6)	1.1 (0.0)	1.3 (-2.0)	1.1 (-1.1)
	서울	2.1 (-0.8)	0.1 (-1.1)	0.3 (0.6)	0.0 (0.5)	-0.2 (0.6)	-0.6 (-0.8)	-0.2 (-0.4)
	남자	0.5 (-1.0)	0.0 (-1.3)	0.4 (0.2)	-0.3 (0.0)	-1.6 (0.1)	-1.5 (-0.7)	-0.9 (-0.4)
	여자	4.4 (-0.6)	0.3 (-0.7)	0.2 (1.1)	0.4 (1.3)	1.7 (1.3)	0.4 (-1.1)	0.7 (-0.3)
청년층 취업자	전국	-2.6 (1.6)	-3.7 (-3.4)	-3.7 (-1.4)	-4.9 (-0.6)	-3.4 (1.0)	-2.8 (0.6)	-2.2 (2.2)
	서울	-2.3 (0.8)	-6.9 (-3.3)	-4.0 (0.7)	-7.6 (-2.3)	-6.5 (1.4)	-5.3 (1.1)	-2.7 (3.6)
고령층 취업자	전국	3.7 (-3.9)	4.8 (-0.5)	4.1 (1.9)	6.1 (2.7)	6.3 (-1.5)	6.4 (-7.8)	6.4 (-3.9)
	서울	5.5 (-2.6)	4.9 (0.4)	2.3 (1.5)	8.2 (5.7)	7.4 (0.3)	6.3 (-1.8)	6.1 (-2.7)
	55-59세	2.3 (-2.2)	0.4 (-1.2)	2.7 (2.8)	3.4 (2.0)	2.6 (1.3)	-1.6 (-3.4)	-1.6 (-2.3)
	60세 이상	8.5 (-3.0)	8.9 (1.9)	1.7 (0.1)	11.9 (8.8)	11.4 (-0.5)	13.0 (-0.5)	12.8 (-3.1)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55세 이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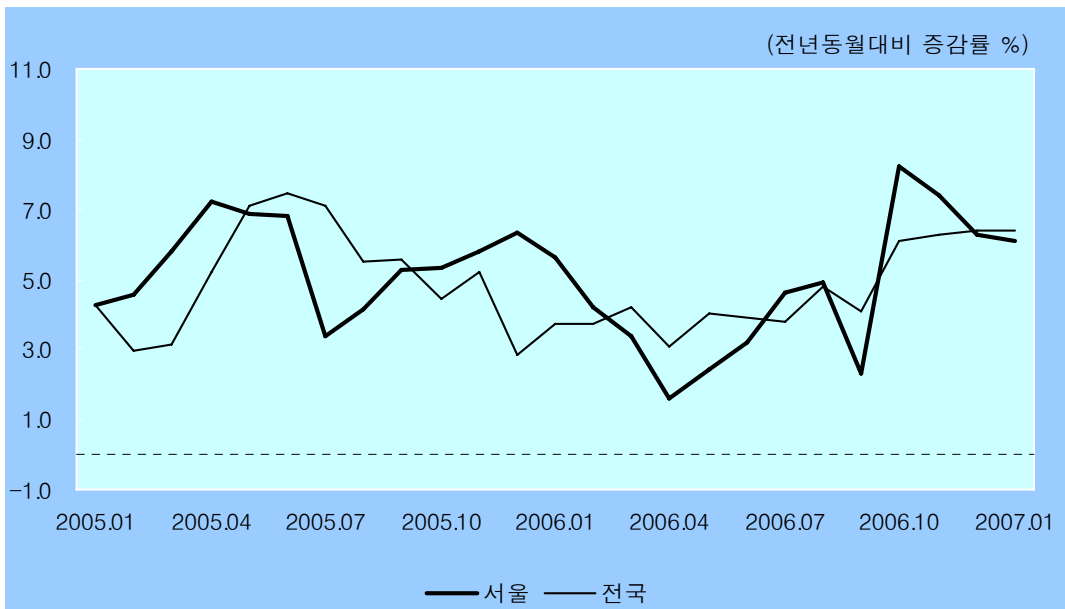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수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

- 1월 산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7.5%)의 비중이 가장 크며, 이어 도소매·음식숙박업(28.5%), 제조업(14.8%), 전기·운수·통신·금융업(11.0%), 건설업(8.1%)의 순임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5% 증가하여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에, 제조업(-4.3%), 건설업(-3.9%), 도소매·음식숙박업(-2.6%), 전기·운수·통신·금융업(-0.1%) 취업자 수는 감소함
-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06년 10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감소 추세임

■ 전문·기술·행정관리자 및 사무종사자 수 증가

- 1월 직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문·기술·행정관리자(30.4%)의 비중이 가장 크며, 이어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28.0%), 서비스·판매 종사자(25.2%), 사무종사자(16.3%) 순임
- 전년동월대비 전문·기술·행정관리자(3.0%), 사무종사자(0.5%) 수는 증가한 반면에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2.3%), 서비스·판매 종사자(-2.1%) 수는 감소함
-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수는 2006년 10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감소 추세임

■ 임금근로자수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지속

- 1월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74.0% (3,619천명), 비임금근로자는 26.0%(1,270천명)로 전년동월대비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1.7%p 증가함
-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2%(78천명) 증가한 반면에 비임금근로자는 6.4%(-87천명)감소하여 비임금근로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5.0% 증가하였으나, 일용근로자(-1.2%)와 임시근로자(-0.1%)는 감소함
- 비임금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는 17.6%, 자영업자는 4.2% 감소하여 무급가족종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함

〈표〉 서울시 고용동향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1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산업별	· 제조업	-4.0 (-1.8)	-3.5 (-2.6)	-4.1 (0.6)	0.0 (5.4)	-6.1 (-6.6)	-6.8 (-1.8)	-4.3 (0.8)
	SOC 및 기타서비스업	3.2 (-0.6)	0.7 (-0.8)	1.1 (0.6)	0.0 (-0.3)	0.9 (2.0)	0.5 (-0.7)	0.6 (-0.6)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6.3 (-1.2)	3.5 (0.0)	2.3 (1.5)	1.5 (0.5)	2.5 (2.8)	3.1 (-1.2)	4.5 (0.1)
	· 도소매·음식숙박	0.0 (-0.9)	-1.2 (-1.6)	-0.8 (-0.2)	-1.8 (-0.6)	-1.2 (0.6)	-1.2 (1.4)	-2.6 (-2.4)
	· 전기·운수·통신·금융	2.4 (1.3)	1.9 (0.0)	1.0 (-2.8)	-0.4 (-1.0)	0.3 (4.0)	-0.3 (-0.2)	-0.1 (1.5)
	· 건설업	3.4 (0.4)	-5.4 (-2.4)	3.1 (4.4)	0.1 (-2.0)	1.5 (0.6)	-3.7 (-5.7)	-3.9 (0.2)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0.7 (-1.0)	1.7 (-1.0)	2.9 (1.6)	1.4 (-0.6)	2.8 (1.6)	0.4 (-2.3)	3.0 (1.6)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2.3 (-0.9)	-1.9 (-3.4)	-1.1 (1.4)	1.6 (3.0)	-1.0 (-1.9)	-3.0 (-3.5)	-2.3 (-0.2)
	서비스·판매종사자	-0.1 (-0.3)	-0.2 (1.3)	-2.1 (-2.1)	-3.9 (-0.8)	-2.5 (1.3)	1.7 (3.7)	-2.1 (-4.0)
	사무종사자	8.0 (-1.1)	1.0 (-0.9)	1.7 (1.9)	0.4 (0.1)	-0.9 (2.4)	-2.1 (-0.3)	0.5 (1.5)
종사상지위별	임금근로자	3.3 (-0.8)	1.3 (-2.6)	1.2 (0.7)	0.8 (0.8)	1.0 (0.5)	0.1 (-1.1)	2.2 (1.3)
	비임금근로자	-0.8 (-1.0)	-3.0 (3.2)	-2.0 (0.4)	-2.0 (-0.3)	-3.4 (0.7)	-2.6 (-0.2)	-6.4 (-4.9)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실 · 업 · 률 |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소폭 하락

■ 2007년 1월 전국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소폭 하락

- 1월 전국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한 3.6%(실업자 851천명)임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1%(실업자 565천명)로 전년동월과 동일하며, 여자는 2.9%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함

■ 2007년 1월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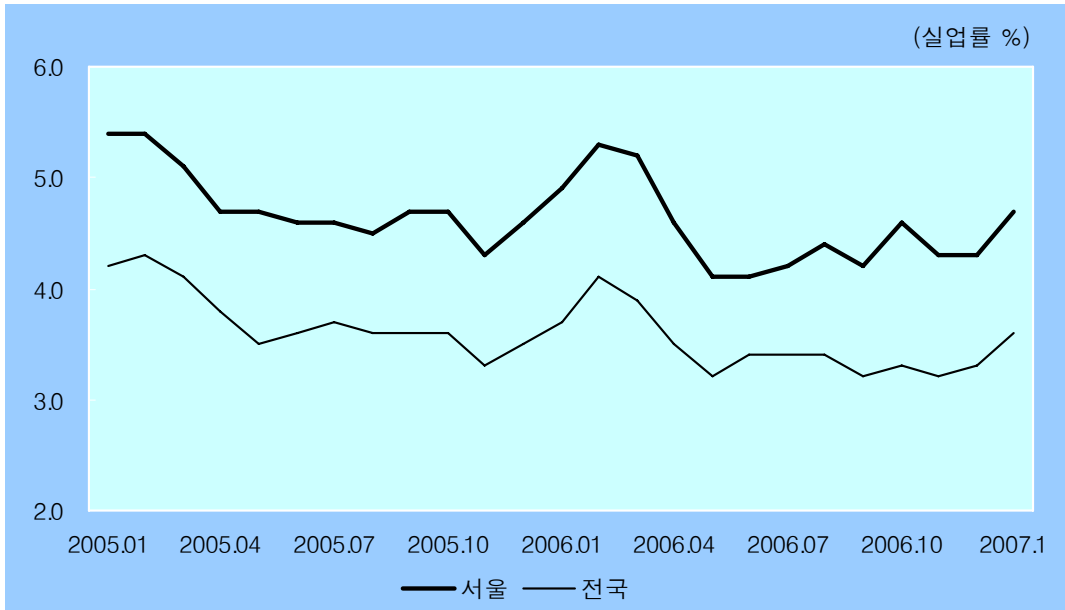
- 1월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한 4.7%(실업자 242천명)로 전국의 실업률을 1.1%p 상회함
- 1월중 서울의 실업률은 지난 5년간 1월 평균 실업률 5.1%보다 0.4%p 낮은 수준임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6%, 여자는 3.5%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0.4%p 상승한 반면에 여자는 1.0%p 하락함
- 전국에 비해 남자는 1.5%p, 여자는 0.6%p 높은 수준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전국과의 격차가 더 큼
- 남자의 실업률과 여자의 실업률의 차는 7월 이후(7월:0.2%p, 8월:0.4%p, 9월:0.8%p, 10월:1.0%p 11월:1.3%p 12월:1.7%p) 꾸준히 확대되어 옴

〈표〉 실업동향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1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국		3.7	3.4	3.2	3.3	3.2	3.3	3.6
서울		4.9	4.4	4.2	4.6	4.3	4.3	4.7
성 별	남자	5.2	4.6	4.5	5.0	4.9	5.0	5.6
	여자	4.5	4.2	3.7	4.0	3.6	3.3	3.5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 건 · 설 · 경 · 기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06년 12월 기준 전국의 건축허가면적 전년동월대비 감소
 - 12월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은 15,305천^m으로 전년동월대비 8.3% 감소함
 - 용도별로 보면 전체 면적의 47.7%를 차지하는 주거용 허가면적(-20.8%)은 감소하였으나, 공업용(42.8%), 상업용(9.3%), 교육 및 사회용(0.9%)은 증가함
- 2006년 12월 기준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주거용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
 - 12월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월대비 7.5% 증가한 1,184천^m으로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의 7.7%를 차지하고 있음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은 지난 10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나타냄
 - 전체 건축허가면적의 24.6%를 차지하는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월대비 51.1% 감소하였으며, 이 중 아파트는 55.7%, 연립은 36.1%, 단독은 25.0% 감소함
 -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월대비 117.9% 증가하였으며, 기타(-86.4%)를 제외한 공업용(337.5%), 상업용(121.4%), 문교 및 사회용(70.7%) 허가면적이 증가함
- 2006년 12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
 - 2006년 12월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1,738,561백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4.8% 증가함
 -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전국의 10.6%를 차지고 있으며, 2006년 월평균 전국대비 비중(17.1%)보다 6.5%p 낮은 수준임
 - 발주자별로 보면 신규주택, 사무실, 학교·관공서의 발주가 감소함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31.4% 증가하였으나, 신규주택, 재건축주택, 사무실 부문의 발주가 감소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15.5% 감소함
 - 공종별로 보면 전체 건설수주액의 93.1%를 차지하는 건축 부문에서 10.9% 증가하였으며 6.9%를 차지하는 토목 부문에서 250.2%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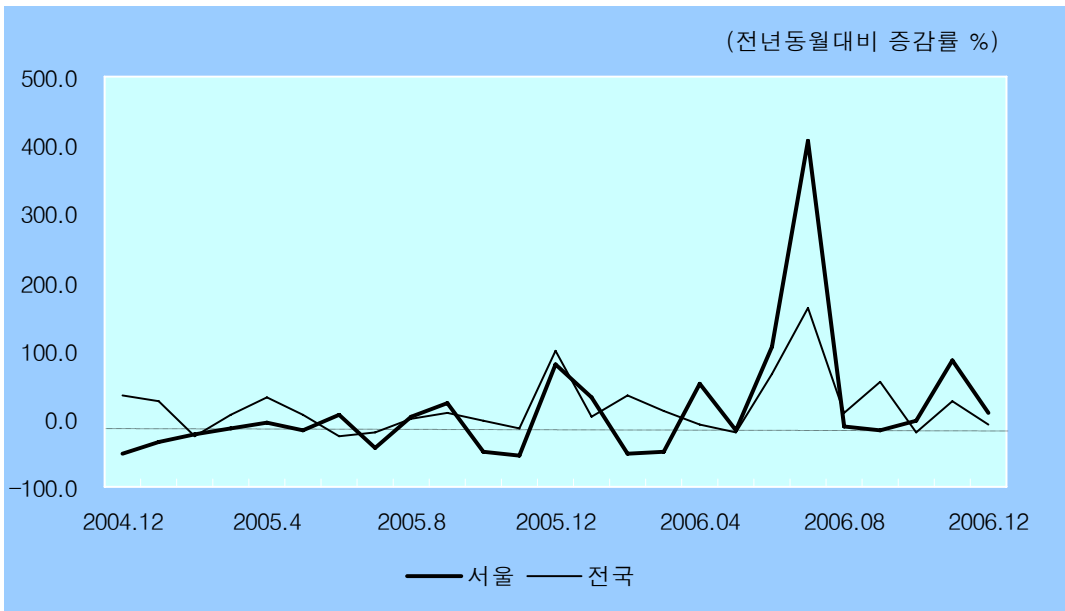
〈표〉 건축물 허가면적

(단위: 천㎡, %)

구 분	2005년	2006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2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16,688	8,502	11,109	7,353	10,531	15,305	-8.3	(45.3)	
서울	1,102	692	775	518	1,126	1,184	7.5	(5.2)	
주거용	소계	597	113	219	66	140	291	-51.1	(107.9)
	단독	12	10	14	9	13	9	-25.0	(-30.8)
	연립	122	18	49	47	58	78	-36.1	(34.5)
	아파트	463	85	156	11	69	205	-55.7	(197.1)
비주거용	소계	505	579	556	452	985	893	76.7	(-9.3)
	상업	316	430	284	378	819	618	95.5	(-24.5)
	공업	27	34	143	5	35	27	0.4	(-22.9)
	문교/사회	86	111	87	67	128	181	110.2	(41.4)
	기타	76	3	42	2	3	67	-12.0	(2133.3)

주: 연립은 다세대-다가구-다중주택 포함, 기타는 공업용, 공공용 포함, ()안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므로 소계가 다를 수 있음

자료: 건설교통부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축허가면적 추이

〈표〉 건설수주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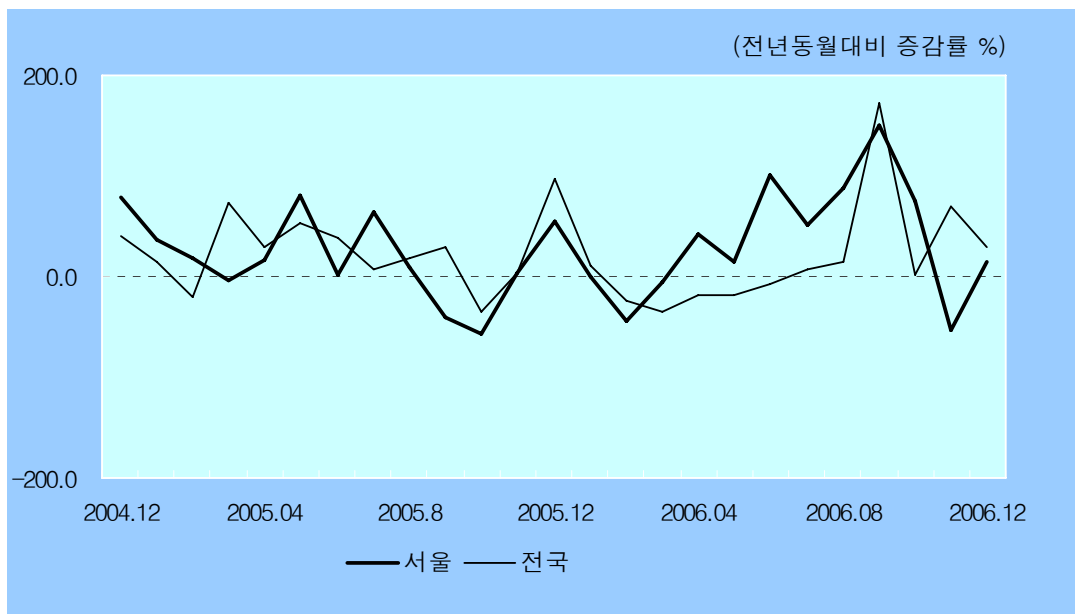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5년	2006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12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12,608.7	5,910.2	10,223.2	5,438.8	9,205.3	16,332.6	29.5 (77.4)	
서울	1,513.9	870.1	1,316.2	1,273.6	449.4	1,738.6	14.8 (286.8)	
발주 자별	공공	200.9	72.4	596.8	482.2	177.2	169.8	-15.5 (-4.2)
	민간	1,190.9	512.0	517.0	791.4	273.2	1,564.5	31.4 (472.6)
공종 별	건축	1,459.0	855.6	1,205.4	1,205.3	322.3	1,618.3	10.9 (402.1)
	토목	29.7	12.0	106.0	67.0	124.6	104.1	250.2 (-16.5)

주: ()안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둔화

■ 2007년 1월 기준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소폭 둔화

- 1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9% 상승하여 추석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던 상승세가 지난 12월 이후 다소 안정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정부의 11.15 부동산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매수 대기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데 기인함
- 그러나 뉴타운, 재개발 등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여전히 수급불균형 현상을 보이며 상승함

■ 2007년 1월 기준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둔화

- 1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1.5% 상승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 19.9% 상승함
- 지난 12월에 이어 정부의 11.15 및 1.11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다소 안정되는 양상을 나타냄
- 그러나 지난 10년간 1월 평균 상승률이 0.4%임을 고려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전국보다 0.6%p 높은 수준으로 전국과의 격차가 3개월(11월: 1.7%p, 12월: 1.1%p) 동안 점차 축소되는 양상을 나타냄
- 세부지역별로 강북은 2.0%, 강남은 1.1% 상승하여 지난 12월에 이어 강북이 더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
- 주택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1.8%, 연립주택 1.4%, 단독주택 1.0% 상승함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3.0=100.0,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1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국	0.3	0.2	0.5	1.3	3.1	1.9	0.9 (12.2)
서울	0.6	0.4	0.8	2.0	4.8	3.0	1.5 (19.9)
아파트	0.9	0.3	0.6	2.2	6.2	3.7	1.8 (25.1)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0.2	0.5	0.7	1.5	4.1	2.0 (16.8)
	강남	1.0	0.2	0.9	2.3	5.4	1.1 (22.8)

주: 전월대비 증감률, ()안은 2005년 12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강북 주요 상승지역은 노원구, 도봉구

- 강북 지역을 구별로 살펴보면 3개월 연속 노원구(3.7%)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었으며, 이어 도봉구(3.6%), 용산구(3.0%), 중랑구(3.0%)에서 서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을 상회함
- 반면 종로구(0.2%) 1.0% 미만의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냄
- 지난해 1월 대비 강북지역은 재개발 지역인 용산구(28.5%), 노원구(25.8%)를 제외하고 20.0% 미만의 상승률을 나타냄

■ 강남 주요 지역은 구로구, 관악구

- 강남 지역을 구별로 살펴보면 구로구(1.8%), 관악구(1.6%)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구에서 서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1.5%)을 하회함
- 이는 정부의 11.15 및 1.11 대책 발표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반적인 강남지역 주택매매가격의 상승세 둔화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됨
- 지난해 1월 대비 양천구(31.0%)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금천구(9.9%), 관악구(13.1%)를 제외한 모든 강남지역에서 20.0%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나타냄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 둔화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12월 대비 1.8% 상승하였으며, 강북은 2.8%, 강남은 1.1% 상승하여 강북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함
- 구별로 보면 지난 12월에 이어 도봉구(4.1%), 노원구(3.9%)에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이어 중랑구(3.4%), 광진구(2.8%), 성북구(2.7%), 강북구(2.3%), 중구(2.1%), 영등포구(2.0%)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상회함
- 반면 양천구(0.2%), 서초구(0.7%), 강남구(0.8%), 종로구(0.9%)에서는 1.0% 미만의 낮은 상승률을 나타냄
- 서울의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은 대비 1.3% 상승한 1,725만원으로 지난 12월에 비해 상승폭이 2.1%p 축소됨
-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이 서울 평균 가격 이상인 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양천구, 강동구, 광진구이며, 반면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이 서울 평균 가격의 1/2 이하인 구는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금천구, 강북구임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 2007년 1월 기준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 2007년 1월중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4% 상승하여 상승세가 지속됨
 - 정부의 주택공급확대 계획의 영향으로 매수대기자의 전세수요 전환과 겨울방학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물량 부족현상이 나타나는데 기인함
- 2007년 1월 기준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 2007년 1월중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5% 상승하여 꾸준히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 그러나 9월 이후의 급격한 상승세는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나타냄
 - 일반적으로 1월은 겨울방학 이사수요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1월은 지난 10년간 1월 평균 증감률(0.6%)을 소폭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보면 강북은 0.6%, 강남은 0.5% 상승하여 지난 8월 이후로 강북의 상승률이 강남을 상회함
 -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는 0.7%, 단독주택은 0.4%, 연립주택은 0.4% 상승하여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2003.0=100.0,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1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국	0.4	0.2	0.8	1.0	1.0	0.6	0.4	(6.5)
서울	0.6	0.4	1.3	1.4	1.6	0.5	0.5	(9.8)
아파트	0.9	0.4	1.2	1.7	1.7	0.6	0.7	(11.3)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0.4	0.6	1.3	1.6	1.6	0.8	0.6 (9.8)
	강남	0.7	0.2	1.2	1.3	1.6	0.5	0.5 (9.8)

주: , () 은 전년동월비 증감률임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주요 상승지역은 중랑구, 서초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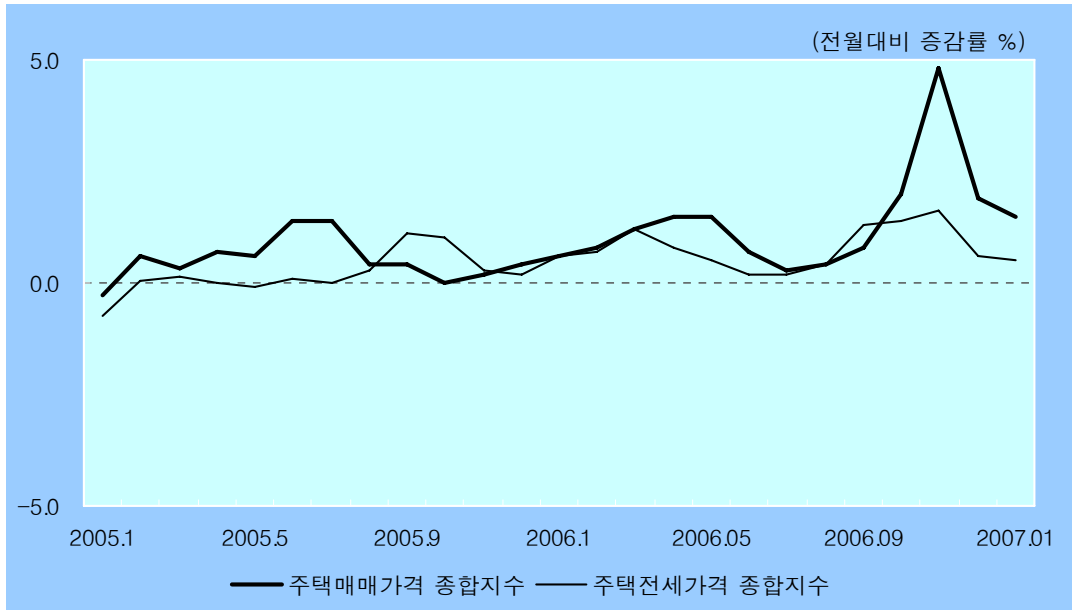
- 지역별로 보면 중랑구(1.6%), 서초구(1.2%)에서 전월대비 1.0%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이어 광진구(1.0%), 강남구(0.9%), 동대문구(0.9%), 노원구(0.8%), 구로구(0.7%), 관악구(0.6%), 서대문구(0.6%)에서 서울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을 상회함
- 반면 양천구(-0.1%)는 소폭 하락하였으며, 강동구(0.1%), 용산구(0.1%), 중구(0.1%)에서 0.2% 미만의 미미한 상승률을 나타냄

■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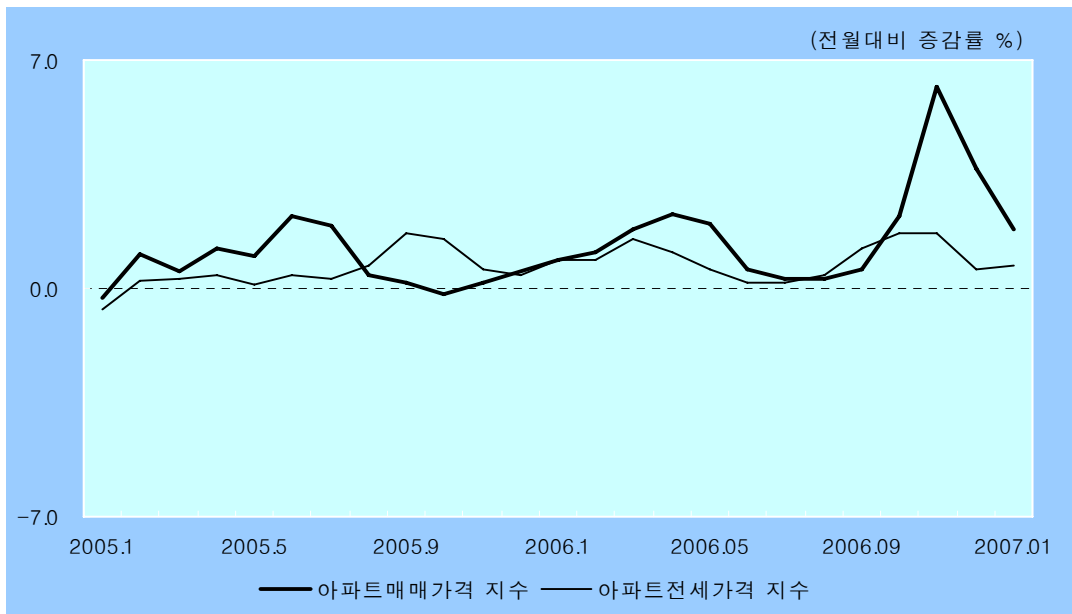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년동월대비 0.7% 상승하여 상승세가 지속됨
- 지역별로 보면 강북은 0.8%, 강남은 0.6% 상승하여 강북의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이 0.2%p 높음
- 구별로는 광진구(1.6%), 강북구(1.5%), 서초구(1.4%), 동대문구(1.2%), 중랑구(1.2%) 금천구(1.1%)에서 1.0% 이상의 아파트 전세가격상승률을 나타냄
- 반면 지난 12월에 이어 양천구(-0.3%)는 전월 대비 하락하였으며, 중구(0.1%), 강동구(0.2%), 도봉구(0.2%), 송파구(0.3%), 강서구(0.4%), 관악구(0.4%), 동작구(0.4%)에서 0.5% 미만의 아파트 전세가격상승률을 나타냄
- 1월중 서울의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전년동월대비 1.2% 상승한 584만원으로 강남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금천구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지난 12월 이후 45% 미만을 나타냄

- 2007년 1월중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2.9%로 지난 12월에 비해 0.9%p 하락함
- 이는 전국 평균 54.3%를 11.4%p 하회하고 있으며 전국과의 격차(9월:9.0%p 10월:9.1%p, 11월:10.1%p, 12월: 10.9%p)는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적으로 보면 강북은 49.7%, 강남은 37.2%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10% 이상임
- 지난 11월 이후 강남지역은 30% 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에 비해 매매가격 상승이 훨씬 높았음을 반영함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은행의 가계대출 감소세로 전환

- 2007년 1월 기준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 상승세
 -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전월대비 0.1%p 오른 5.02%로, 2006년 9월 이래 상승세를 지속함
 - 월초 2006년말 단기간 급등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등으로 내림세를 보였으나 금통위(1.12일) 이후 한은의 추가 긴축 가능성, 미국채 수익률 상승, 원/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반등함

- 2007년 1월 기준 CD(91일) 유통수익률 소폭 상승
 - CD 유통수익률은 전월대비 0.1%p 오른 4.96%로, 발행 확대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지속하였으나 상승 속도는 다소 둔화됨
 - 1월말 현재 콜금리(1일)는 4.61%로, 지난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25%p 인상한 상향조정치 4.50%에서 0.11%p 상승함

- 장·단기 금리차 상승
 - 장·단기 금리차는 국고채가 지난 9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전월대비 상승함
 - 국고채 금리가 장단기 금리 격차 축소 부담으로 상승한 가운데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어 경기회복이 기대됨

- 2007년 1월 기준 KOSPI 지수 6월 중순 이후 상승세 지속
 - 1월 KOSPI 지수는 1월초 프로그램매도 및 글로벌 유동성 위축 우려, IT관련 기업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등락을 거듭한 끝에 전월대비 비교적 큰 폭(74.23p, 5.2%)으로 하락한 1,360.23p로 마감함
 - 1월 KOSDAQ 지수는 프로그램매매의 영향이 적은 가운데 IT에 대한 부정적 전망 등으로 전월대비 29.78p(4.9%) 하락한 576.27p로 마감함

■ 2007년 1월 기준 원/달러 환율 보합세

- 1월중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강세와 역외 달러매수 영향으로 941원대로 상승마감함
- 월 초반에는 이월된 수출물량 영향 등으로 925원대(1.2일)로 하락하며 출발하였으나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강세와 환율대책에 대한 기대 등으로 1.12일(940원대) 이후 월말까지 등락을 거듭하다가 941원으로 상승반전함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말, 단위: %, %p, p)

구 분	2006년				2007년		전월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26일		
금 리	국고채(3년)	4.57	4.71	4.82	4.92	5.02	4.84	2.0
	CD(91일물)	4.59	4.58	4.67	4.86	4.96	4.94	2.1
	콜금리(1일)	4.48	4.48	4.49	4.60	4.61	4.50	0.2
	장·단기 금리차 ¹⁾	0.09	0.23	0.33	0.32	0.41	0.34	28.1
주 가	KOSPI ²⁾	1,371.41	1,364.55	1,432.21	1,434.46	1,360.23	1,470.03	-5.2
	KOSDAQ ²⁾	600.42	586.1	622.17	606.15	576.37	613.01	-4.9
환율 (W/US\$) ²⁾		946.2	942.3	929.5	930.6	940.9	938.6	1.1

주: 1)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 - 콜금리

2) 종합주가지수, 코스닥지수, 환율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2007년 1월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감소세로 전환

- 1월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2006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전월대비 0.2조원 감소함
- 주택담보대출은 리스크관리 강화, 주택거래 비수기, 주택가격 상승 기대 약화의 영향 등으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됨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은 연초 상여금 지급으로 0.9조원 감소함(2004~2006년중 1월 평균: -0.8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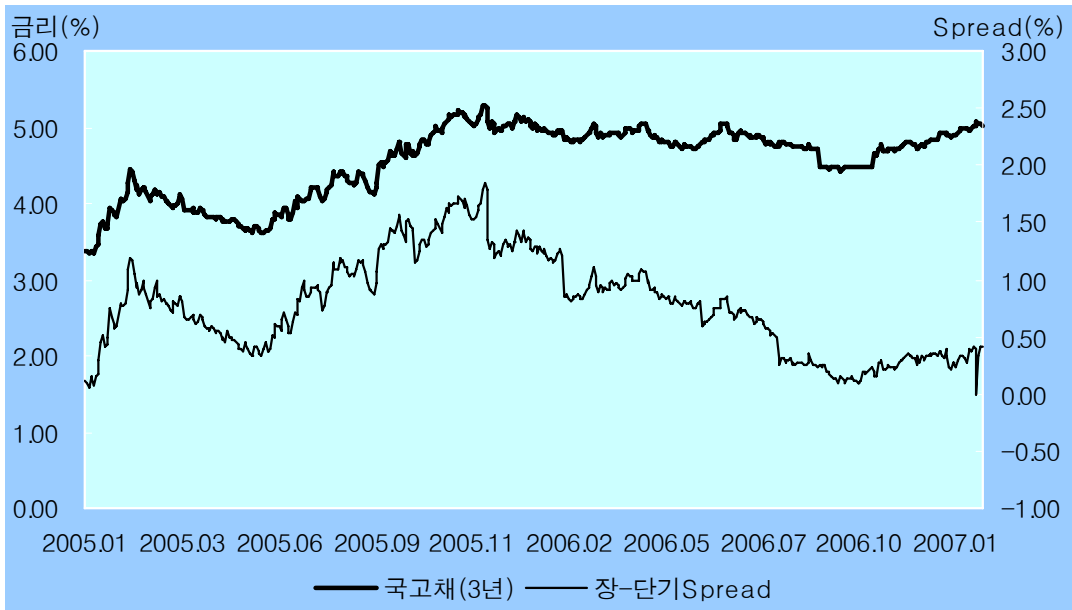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기간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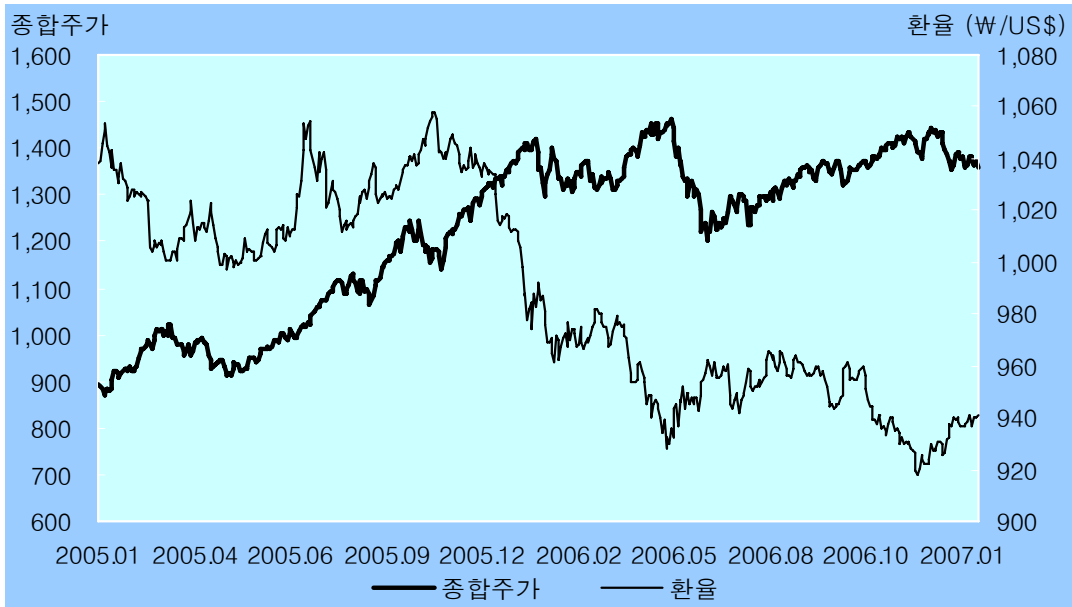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월말잔액		전월비
	연중	연중	1월	11월	12월	1월	2006년	2007년	
							12월	1월	
가계대출 ¹⁾	29.4	40.9	-0.5	5.6	5.0	-0.2	345.6	345.4	-0.1
주택담보대출 ²⁾	20.6	26.8	0.3	4.2	3.2	0.7	217.0	217.8	0.4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9.2	14.0	-0.7	1.5	1.7	-0.9	126.9	126.0	-0.7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2006년중 서울지역 대출금 증가세 확대

- 2006년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352조 4,225억원으로, 연중 41조 1,584억원이 증가함(+13.2%)
- 지방 대출금 잔액은 564조 2,901억원으로, 연중 71조 515억원 증가함(+14.4%)
- 지방의 대출증가세가 서울지역을 상회한 것은 지방소재 중소기업대출 증가와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분양 등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에 큰 영향을 받음

<표>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및 증감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원, %)

	2003년중	2004년중	2005년중	2006년중	2006년말 잔액
전 국	79,118.5 (12.9)	43,655.1 (6.3)	68,537.4 (9.3)	112,209.9 (13.9)	916,712.6
서 울	23,576.5 (9.3)	9,112.7 (3.3)	26,221.1 (9.2)	41,158.4 (13.2)	352,422.5
지 방	55,542.0 (15.4)	34,542.4 (8.3)	42,316.3 (9.4)	71,051.5 (14.4)	564,290.1

주: *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1) ()는 전년말대비 증감률임

■ 2006년말 서울지역 대출금 잔액 비중 지방보다 하회

- 2006년말 현재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중 서울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8.4%로, 2004년말과 2005년말의 38.7%에 비해 0.3%p 상승함

<표>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비중 (단위 : %)

	2003년말	2004년말	2005년말	2006년말
서 울	39.9	38.7	38.7	38.4
지 방	60.1	61.3	61.3	61.6

■ 2006년말 서울의 예금은행 예대율

- 2006년말 자금의 지역환류도를 나타내는 서울의 예대율(총대출금잔액/총예수금잔액)은 지난 2005년말(58.2%)보다 2.4%p 하락한 55.8%를 기록함

<표> 지역별 예금은행 예대율* 추이 (단위 : %, %p)

	2004년말	2005년말	2006년말	연 중 증 감		
				2004년중	2005년중	2006년중
전 국	81.0	81.7	83.2	1.7	0.7	1.5
서 울	58.6	58.2	55.8	-0.7	-0.3	-2.4
지 방	114.1	117.0	128.2	6.2	3.0	11.2

주: * 총대출금(금융자금대출+재정자금대출)/총예수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CD+금융채), 2002년부터 산업은행 포함

| 창 · 업 · 동 · 향 |

서울 신설법인 수 전월대비 큰 폭으로 증가

- 2007년 1월 기준 전국 신설법인 수 큰 폭으로 증가
 - 1월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전월대비 26.4%(1,114개) 증가한 5,337개임
 - 업종별로 전월대비 제조업(44.3%)과 건설 및 설비업(22.3%), 서비스업(5.4%) 등 전업종이 증가함
 - 업종별 비중은 서비스업 62.5%, 제조업 18.5%, 건설 및 설비업 18.2%를 차지함

- 2007년 1월 기준 서울 신설법인 수 큰 폭으로 증가
 - 1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전월대비 22.1%(358개) 증가한 1,981개이고, 전국대비 지역별 비중은 37.1%로 나타남
 - 업종별로 전월대비 건설 및 설비업(108.7%)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제조업(37.6%), 서비스업(15.4%) 등 전업종이 증가함

- 서울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 증가
 - 1월 서울의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는 1,639개로 전월대비 219개 증가함
 - 부문별로 보면 운수업(56.1%), 기타서비스업(32.0%), 도소매업(21.1%), 사업서비스업(18.5%) 등이 증가한 반면 통신업(-43.8%), 숙박 및 음식점업(-26.1%), 부동산 및 임대업(-15.3%) 등이 감소함
 - 서울의 전체 신설법인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전월(87.5%)보다 감소한 82.7%로 나타남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6년				2007년	전월비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증감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전국	4,693	3,451	4,393	4,223	5,337	1,114	(644)	26.4	(13.7)
서울	1,844	1,346	1,729	1,623	1,981	358	(137)	22.1	(7.4)
서비스업	1,513	1,143	1,473	1,420	1,639	219	(126)	15.4	(8.3)
제조업	150	103	97	109	150	41	(0)	37.6	(0.0)
건설 및 설비업	177	98	154	92	192	100	(15)	108.7	(8.5)

주: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중소기업청

| 어 · 음 · 부 · 도 · 율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대비 하락

■ 2007년 1월 기준 전국 어음부도율 하락

- 1월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0.02%로, 서울지역 부도금액이 감소하는 등에 기인하여 전월 대비 0.01%p 하락함
-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188개로, 전월(169개) 보다 19개 증가하여 2006년중 평균 211개를 하회함
- 업종별로 제조업(60개→65개)과 건설업(31개→38개), 서비스업(70개→77개) 등 대부분이 증가함

■ 2007년 1월 기준 서울 어음부도율 하락

- 1월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1%로, 전월대비 0.01%p 하락함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전월대비 8개 증가한 66개로, 2006년중 평균(74.3개)을 하회함
- 지역별로는 서울의 부도업체 수 8개, 지방은 11개(111개→122개) 각각 증가하였고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전국 부도업체 수의 35.1%를 차지함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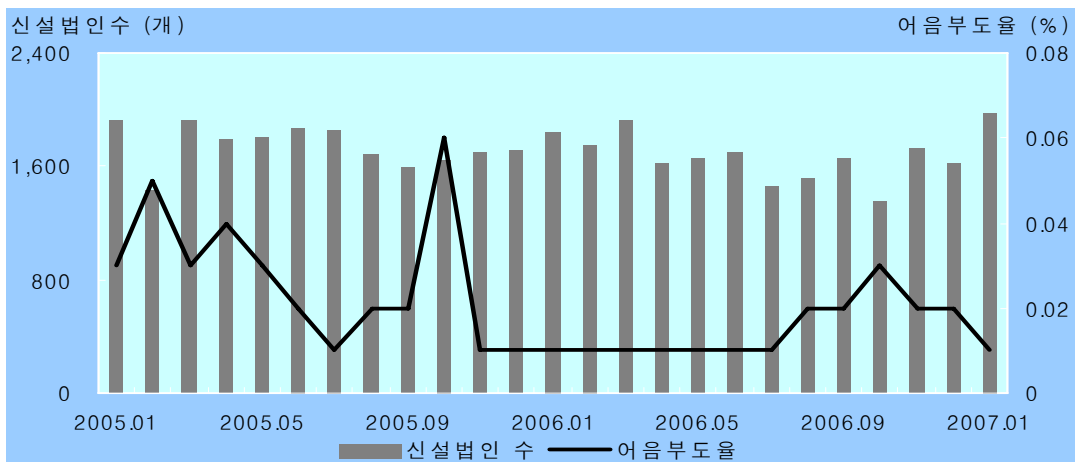
(단위: 개소, %, %p)

구 분	2006년				2007년	전월비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어음부도율	0.02	0.04	0.03	0.03	0.02	-0.01	(0)	-33.3	(0)
	부도업체 수	213	181	234	169	188	19	(-25)	11.2	(8.9)
서울	어음부도율	0.01	0.03	0.02	0.02	0.01	-0.01	(0)	-50	(0)
	부도업체 수	82	72	74	58	66	8	(-16)	13.7	(9.8)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일반보증 수요 증가추세

■ 「2007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은 연말 자금수요에 따른 조기처리 등으로 인해 1월중 621건, 17,892백만원 공급하여 전월대비 건수 42.6%, 금액 54.6% 감소함
- 건당평균금액이 지난 12월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제외시 전년동월(25.1백만원) 대비 증가함
- 2007년 1월 3일 「2007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이 공고됨에 따라 일반보증 수요 증가추세임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p)

구 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비	
	1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증감	증감률
건수	1,761	1,171	875	1,115	1,081	621	-1,140 (-460)	-64.7 (-42.6)
금액	19,972	39,789	27,577	39,923	39,401	17,892	-2,080(-21,509)	-10.4 (-54.6)
건당평균금액	11.3	34.0	31.5	35.8	36.4	28.8	17.5 (-7.6)	154.9 (-20.9)

주: () 괄호안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2007년 1월 기준 도·소매업의 비중 증가세

- 1월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은 도·소매업의 비중(금액기준)이 전월대비 6.1%p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제조업과 기타업종이 각각 5.5%p, 3.7%p 감소함

〈표〉 2007년 1월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72	250	111	139	49	621
비율	11.6	40.2	17.9	22.4	7.9	100
금액	2,588	8,017	2,575	3,384	1,327	17,891
비율	14.5	44.8	14.4	18.9	7.4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의 비중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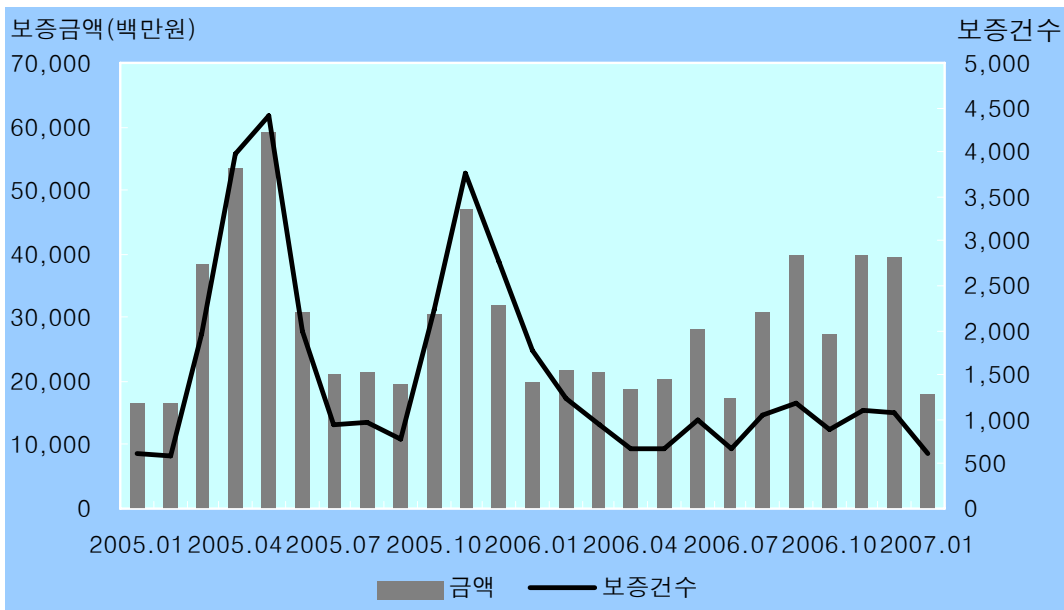
-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은 증가세를 보이던 중기업 및 소기업의 비중(금액기준)이 마
 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별보증이 감소함에 따라 하락하였으며, 반면 소상공인의
 비중(금액기준)이 전월대비 11.6%p 증가하여 82.2%를 나타냄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06.11	2006.12	2007.01	전월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1,000	973	572	-401
	비율	89.7	90.0	92.1	2.1
	금액	28,083	27,835	14,700	-13,135
	비율	70.3	70.6	82.2	11.6
소기업	건수	84	78	39	-39
	비율	7.5	7.2	6.3	-0.9
	금액	9,323	8,613	2,254	-6,359
	비율	23.4	21.9	12.6	-9.3
중기업	건수	31	30	10	-20
	비율	2.8	2.8	1.6	-1.2
	금액	2,517	2,953	938	-2,015
	비율	6.3	7.5	5.2	-2.3
합계	건수	1,115	1,081	621	-460
	비율	100	100	100	0
	금액	39,923	39,401	17,892	-21,509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수 · 출 · 입 · 동 · 향 |

서울 수출 및 수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07년 1월 기준 전국 수출 증가세 확대
 - 1월 전국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0.9% 증가한 28,122백만 불로, 설 연휴 이동으로 영업일수가 늘어난(+1.5일) 데다 선박, 철강금속 등이 해외수요 호조 등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영향으로 증가세 확대됨
 - 품목별로는 선박(79.8%), 철강제품(42.8%) 및 기계류·정밀기기(26.0%)가 증가를 주도한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제품(-0.4%)이 감소세로 돌아섬
- 2007년 1월 기준 전국 수입 증가세 확대
 - 2007년 1월중 전국의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20.3% 증가한 27,776백만 불을 기록함
 - 용도별로 원자재는 유가안정 등으로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나, 자본재는 화학기계, 반도체, 제조용장비 등의 도입증가로 증가세가 확대됨
- 2007년 1월 기준 서울 수출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07년 1월중 서울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3.1% 증가한 2,023백 불을 기록함
 -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제품(49.3%), 기계류(49.0%), 화학공업제품(28.3%) 등 대부분의 품목이 증가하였고, 국가별로는 일본(-6.5%)을 제외하고 중국(55.3%), 베트남(33.7%), 미국(9.4%) 등 대부분이 증가함
- 2007년 1월 기준 서울 수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07년 1월중 전국의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22.6% 증가한 5,192백만 불을 기록함
 - 품목별로는 기계류(-7.1%)를 제외한 철강금속제품(107.9%), 광산물(52.4%), 생활용품(44.9%) 등 대부분이 증가하였고, 국가별로는 미국(-8.1%)을 제외하고 중국(47.4%), 말레이시아(46.0%), 독일(42.0%) 등 대부분이 증가함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비				
	1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p	증감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전국	수출	23,258	29,657	28,054	30,661	28,775	28,122	4.864	(-653)	20.9	(-2.3)
	수입	23,089	27,709	25,639	26,763	27,518	27,776	4.687	(258)	20.3	(0.9)
서울	수출	1,643	2,280	1,907	2,192	2,222	2,023	380	(-199)	23.1	(-9.0)
	수입	4,236	5,379	4,981	5,267	5,160	5,192	956	(32)	22.6	(0.6)

주: ()안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무역협회